

'아시아'의 발명—19 세기 리전(region)의 생성

미타니 히로시(아토미학원여자대학)

【발표요지】

19 세기는 오늘날 ‘동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에 있었던 나라가 유럽이 주도하는 글로벌화의 파도에 휩쓸려 이를 계기로 상호간의 관계를 재조직한 시대였다. ‘아시아’라는 말은 원래 유럽인이 그들의 거주지역 동쪽에 펼쳐진 넓고 아득한 공간을 가르켜서 썼던 말이었다. 이번 강연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실속있는 지역개념으로 변했는가를 스케치하려고 한다. 외부와의 차별을 강조하고 더불어 어떤 공통성이나 내부관련, 나아가 연대성을 가르키는 말로써 사용하게 되는 과정을 소개해서 이번 회의의 테마들, 즉 서양 지(知)의 영향, 내셔널리즘 그리고 국경을 넘는 이동을 생각하기 위한 소지를 제공하고자 한다.

【약력】

미타니 히로시 / 三谷 博 / MITANI Hiroshi

1978 년 동경대학교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국사학전문과 정 박사과정 단위취득 퇴학. 동경대학교 문학부 조수, 학습 원여자단기대학 전임강사·조교수를 거쳐, 1988 년 동경대 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그 후 동경대학교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교수 등을 역임. 현재 아토미학원(跡見學園)여자대학 교수, 동경대학교 명예교수. 문학박사(동경대학교). 전 공분야는 19 세기 일본의 정치외교사, 동아시아지역사, 내셔널리즘·민주화·혁명의 비교사, 역사학방법론. 주요 저작: 『明治維新とナショナリズム—幕末の外交と政治變動』(山川出版社, 1997), 『明治維新を考える』(岩波書店, 2012), 『愛国・革命・民主』(筑摩書房, 2013) 등. 공저로는, 『国境を越える歴史認識—日中対話の試み』(劉 傑·楊大慶과 공저, 東京大学出版会, 2006) 등 다수.